

미래가 온다 대멸종

김성화 권수진 글, 이철민 그림



미래가 온다 대멸종은 우리 앞에 닥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에 대하여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책이다.

인류가 지구에서 살게 된 이후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이루는 동안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,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. 그리고 지금, 여섯 번째 대멸종의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. 대멸종을 막기 위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이다.

1. 대멸종이 온다

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한 이후 30억 년 동안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어 왔어요.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우리 지구에 닥쳐오고 있어요. 이미 시작된 무시무시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징후에 대하여 적어 보세요.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dashed border, intended for writing notes or answers related to the text above.

2. 대멸종 이후의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.

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? 또 대멸종 뒤에 살아남는 생물은 무엇일까요? 지구의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? 다음 만화를 보고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dashed line border, intended for writing answers or thoughts.

3.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 보세요.

퀴즈! 퀴즈!

장	질문	답
01 무시무시한 이야기	<p>① 지구의 역사에서 다른 15만여 생물종의 절멸을 일으킨 생물종은 무엇일까요?</p> <p>②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하며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지원하는 국제 기구는 무엇인가요?</p>	
02 멸종의 속도가 1000배 빨라져	<p>③ 수천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온 유구한 생물종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일이다. 3억 년 동안 지구의 바다에 끈질기게 살아온 삼엽충도, 2억 5000만 년 동안 지구에 번성한 공룡도 이것 이후 자취를 감추는 것을 (ㄹ)이라 한다.</p> <p>④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동물과 식물 중에 3퍼센트만이 멸종했다. (O, X)</p>	
03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오고 있어	<p>⑤ 멸종과 규모가 달라 수만 년 수십만 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3분의 2가 사라질 때 (ㄷ)이라 부른다.</p> <p>⑥ 대멸종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는 회복된다. 지구 생물종 96퍼센트가 사라진 페름기 대멸종에서는 1000만 년이 지나고 생태계가 회복되었다. (O, X)</p>	
04 멸종은 쉽다	<p>⑦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70퍼센트는 사람과 가축, 개와 고양이며 야생동물은 30퍼센트이다. (O, X)</p>	
05 개구리, 두꺼비, 맹꽁이, 도롱뇽이 사라지고 있어	<p>⑧ (ㅇ)은 2억 9000만 년 전, 공룡보다 먼저 육지에 등장한 최초의 척추동물이다. (ㅇ)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습지가 필요하다. 하지만 국제 자연 보전 연맹은 (ㅇ)의 41퍼센트가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.</p>	

장	질문	답
<p>06 꿀벌 집단 실종 사건</p>	<p>⑨ 꿀벌과 곤충은 식물의 번식에 꼭 필요하다. 2008년 국제 환경 단체 어스워치는 꿀벌을 지구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로 선정했다. 우리가 농사짓고 키우는 작물 중에 4분의 3은 꿀벌이 (그르비)하기 때문이다.</p>	
<p>07 곤충이 이렇게 많은데 사라지고 있다고?</p>	<p>⑩ 지구에서 곤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. 살충제와 농약, 제초제로 몰살을 당하고, (작가 오너)로 알이 너무 일찍 깨어나기도 한다. 또 침입 외래종이 유입되면서 토종 곤충의 생태계가 깨지기도 한다.</p>	
<p>08 지구 동물원 만들기</p>	<p>⑪ (스모 드오스)이 풍부하다는 건 습지, 강과 바다, 열대 우림, 갯벌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, 거기에 사는 종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.</p>	
<p>09 지구의 절반을 남겨야 해!</p>	<p>⑫ (스트 버저)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, 건물, 에너지, 식량, 쓰레기 처리 비용을 땅으로 환산한 넓이를 이르는 말이다. 미래 기술을 이것을 줄이는 게 쓰려고 노력하고, 사람들이 더 적은 자원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면 190만 종 생물들과 지금의 지구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.</p>	

**4. 독서토론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,
인상적이었던 친구의 생각 등에 대해
자유롭게 적어 보세요.**

